

# 부여 정림사지 도용 복원을 위한 籠冠 服飾 연구

박 현 정

서울대학교 · 전북대학교 의류학과 강사

## A Study on Long-guan(籠冠) Costume to restore Clay Figures in Bu-yeo Jeong-lim Buddhist Temple Foundation(扶餘 定林寺地)

Hyunjung Park

Lecturer, Dept. of Clothing & Textiles,  
Seoul National University · Chonbuk National University  
(2001. 4. 21 투고)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haracter and costume of the long-guan clay figures that were excavated in Bu-yeo Jeong-lim Buddhist temple foundation. For this, we first examine the Chinese official uniforms with long-guan, classify the types of long-guan, and then investigate the costume that is worn with long-guan. There are three types of long-guan in China, and that of the clay figures in Jeong-lim Buddhist temple foundation is of type 1. Therefore, the characters of the clay figures are woman servants, and their costume is either blouse-and-trousers(袴褶) or blouse-and-skirt(襦裙).

Key words : Bu-yeo(부여), Jeong-lim Buddhist temple foundation(정림사지), long-guan(籠冠), clay figure(陶俑)

### I. 머리말

백제 사비시대의 수도였던 부여시 중심에 위치한 定林寺地는 백제시대 사찰을 대표할 수 있는 중요한 유적의 하나이다. 정림사지에 대한 학술조사는 해방 전 일본학자 藤澤一夫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1차 발굴 때 “大平八年戊辰定林寺大藏當草”라는 명문이 새겨진 기와조각이 발견된 후 이 절터의 명칭을 定林寺地로 부르게 되었다. 1979-1980에 다시 발굴조사가 있었고 이 때 절터의 회곽내 서남쪽에 위

치한 구덩이 속에서 다량의 塑像, 기와조각과 함께 63점의 陶俑 파편들이 발굴되었다.<sup>1)</sup>

陶俑이란 흙으로 빚어서 구워낸 인형으로, 토기 등에 부착된 古新羅의 土偶와는 달리 殉葬하는 사람 대신 부장한 인형을 의미한다.<sup>2)</sup> 정림사지 도용은 틀을 사용하여 형태를 대략 만든 후 세부를 가공하였으며, 首部와 신체를 별도로 만든 다음 접합시켜 완성하는 방법으로 제작된 것이다.<sup>3)</sup> 정림사지 도용 발굴 당시에는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도용이 발굴된 적이 없었으나 1986년 경주 용강동 고분,

1987년 경주 황성동 고분에서 차례로 도용이 발굴되었다. 이들 경주의 도용은 중국의 제작기법을 도입해서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것으로 보아 신라에서 순장제도를 금지했다는 기록<sup>4)</sup>을 확인시켜주는 동시에 진덕여왕2년<sup>5)</sup> 이후 신라에서의 唐 복식 착용 실태를 보여주는 실증 자료가 되었다.

정립사지 도용 파편 중에는 중국 남북조시대 유물에서 다수 발견되는 籠冠을 쓴 首部 도용이 있다. 이 籠冠 도용의 경우 제작방법이나 관 형태에 중국적 색채가 강하기 때문에 김동욱은 神衆像이나 羅漢像이라고 한 반면<sup>6)</sup> 권태원은 冠을 중심으로 고찰한 후 백제와 북조와의 교류관계를 통해 당시 백제 官人사회에서 널리 착용된 것으로 보았다.<sup>7)</sup>

본 연구는 중국 역대 官服제도에서의 籠冠을 정리하고 벽화·회화·도용에서 보이는 籠冠의 유형을 분류한 후 각 유형별 籠冠과 함께 착용하는 복식(이하 籠冠 服飾이라 함)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정립사지 도용의 성격과 복식을 규명하고자 한다. 籠冠의 제도는 중국 二十五史 輿服志를 통해, 籠冠의 유형은 考古通訊·考古·文物·考古學報 등 중국의 발굴보고서를 통해 분석한다. 籠冠 복식이 규명됨으로써 首部밖에 남아있지 않은 도용의 온전한 형태를 복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중국에서 籠冠은 武冠이라는 이름으로 漢대부터 착용되었으며 남북조시대 이후 唐대까지 籠冠이라는 이름으로 통용되었다. 宋대 이후에는 명칭이 籠巾으로 바뀌면서 형태도 달라진다. 또한 백제는 중국의 唐대까지에 해당하므로 중국 籠冠 복식에 대한 고찰은 漢대부터 唐대까지로 제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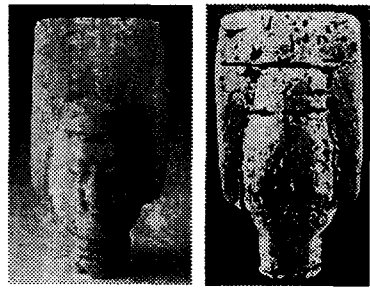
## II. 도용 관의 형태와 명칭

### 1. 형태

부여 정립사지에서 발굴된 籠冠을 착용한 도용은 首部A, B, C, L(알파벳은 발굴보고서 분류번호) 총 네 점이지만 首部L은 오른쪽 귀를 덮는 부분과 코 아랫부분만 남아있어 관의 구체적 형태 파악이 불가능하다. 나머지 3점은 모두 머리 위에 幘을 쓰고 幘 위에 籠冠을 걸친 것처럼 쓰고 있으며 幘의 앞부

분이 籠冠 전면에 돌출되어 있다. 籠冠은 정면에서 봤을 때 凹자를 거꾸로 한 형태로 중앙은 높이 솟은 사각형이며 좌우 아랫부분이 길게 내려와 양쪽 귀를 덮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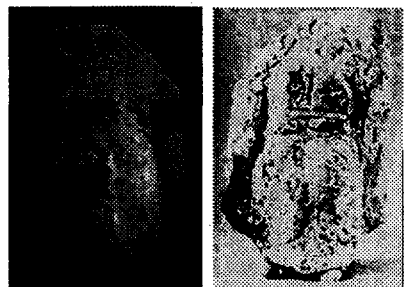
首部A는 앞뒤높이가 거의 비슷한 원통형 幘을 쓰고 그 위에 籠冠을 착용하였다. 籠冠의 중앙 윗부분은 거의 직사각형이며 籠冠의 두께가 幘의 지름보다 작아서 籠冠의 앞뒤로 幘이 돌출되어 있다. 뒤쪽에서 보면 幘 아래로는 머리카락을 양 갈래로 나눈 모습이 보인다.<그림1>



<그림 1> 首部A 도용



<그림 2> 首部B 도용



<그림 3> 首部C 도용

首部B 역시 幘을 쓰고 그 위에 통관을 착용하였다. 통관의 형태는首部A와 비슷하나 뒤쪽에서 보면 幘은 보이지 않고 통관 좌우 귀를 덮는 부분의 머리와의 경계선만 확인된다.<그림2>

首部C는 뒤가 앞보다 높은 幘을 쓰고 그 위에 통관을 착용하였다. 통관의 왼쪽부분이 파손되었으나 위로 갈수록 약간 좁아지는 형태임을 알 수 있다. 통관 앞뒤로 책이 돌출되어 있으며 뒤쪽에서 보면 책 아래로 머리카락을 양 갈래로 나눈 모습이 보인다.<그림3>

2. 명칭

중국의 역대 官服제도에서 籠冠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晉과 南朝 陳대부터이다. 각각의 관복제도를 기록하고 있는 『晉書』<sup>8)</sup>와 『隋書』<sup>9)</sup>에서 모두 籠冠은 武冠의 다른 이름으로 거론되어 있다. 漢대부터 唐대까지의 관복제도에서의 명칭을 보면 武冠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웠는데 漢대에는 武弁·大冠이라고도 하였고<sup>10)</sup>, 晉대에는 繁冠·建冠·籠冠이라는 명칭이 추가되었다.<표1>

관복제도에서의 대표명칭으로는 漢과 南朝 왕조는 武冠, 北魏부터 隋·唐까지는 武弁을 사용하고 있으나 남북조 이후 唐대까지 일반적으로는 籠冠이라는 명칭이 통용되었다. 南朝 齊나라때 쓰여진

『宋書』에 통관을 착용한 기록이 등장하고 있어<sup>11)</sup> 이미 남북조시대부터 籠冠이라는 이름이 사용된 것을 알 수 있으며 唐나라때 편찬된<sup>12)</sup> 『隋書』에서 “지금은 籠冠이라 한다”고 하여 통관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명칭이었음을 알 수 있다.

原田淑人是 보스톤미술관에 소장된 漢대 벽화에 묘사된 武人の 관<그림7>이 武冠일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유는 武冠을 일명 籠冠이라고 하는데 그림의 관이 網상이므로 그 설명에 부합된다는 것이다.<sup>13)</sup> 한편 籠冠이라는 이름은 그 형태가 籠, 즉 바구니나 새장 등과 비슷한데서 생긴 것으로 보기도 한다.<sup>14)</sup>

중국의 발굴보고서에 의하면 이와 같은 형태의 관을 착용한 도용이나 벽화가 발견되었을 때 漢대의 유물일 경우는 “幘 위에 武弁冠을 썼다”<sup>15)</sup>고 하였고, 남북조 이후의 유물일 경우에는 대부분 “籠冠”<sup>16)</sup>이라고 하였다.<sup>17)</sup>

본 연구에서는 이 관을 총칭하여 남북조 이후 및 현대까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sup>18)</sup> 용어인 籠冠으로 부르기로 한다. 그러나 관복제도를 설명할 경우에는 각 시대 관복제도에서의 대표명칭을 사용하기로 한다.

<표 1> 官服제도에서 籠冠의 명칭

내용 시대	명칭	출처
漢	武冠·武弁·大冠·趙惠文冠·鶡冠	『後漢書』 志第30 輿服 下
晉	武冠·武弁·大冠·繁冠·建冠·籠冠·惠文冠	『晉書』 卷25 志第15 輿服
宋	武冠·大冠·惠文冠	『宋書』 卷18 志第8 禮5
齊	武冠	『南齊書』 卷17 志第9 輿服
梁	武冠	『隋書』 卷11 志第6 禮儀6 (梁)
陳	武冠·武弁·大冠·繁冠·建冠·籠冠·惠文冠	『隋書』 卷11 志第6 禮儀6 (陳)
北魏	武弁	『隋書』 卷11 志第6 禮儀6 (北魏)
北齊	武弁 (北魏의 제도 따름)	『隋書』 卷11 志第6 禮儀6 (北魏)
隋	武弁·籠冠	『隋書』 卷12 志第7 禮儀7 (隋)
唐	武弁	『新唐書』 卷24 志第14 車服

### Ⅲ. 官服제도에서의 籠冠과 籠冠 服飾

『後漢書』 輿服志에 의하면 武冠은 胡服에서 온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戰國시대 趙 武靈王이 북방 이민족의 복식 즉 胡服에서 모방한 것으로, 秦이 趙를 멸한 후 趙나라 임금의 冠을 가까운 신하에게 주었으며 後漢에 이르러 제도로 정착된 것이다.<sup>19)</sup> 漢대의 武冠은 武官과 侍中·中常侍가 착용하였으며 侍中·中常侍는 武冠에 黃金璫·附蟬·貂尾 등을 장식하였고 五官·左右虎賁·羽林·五中郎將·羽林左右監 등은 雙鷓尾를 꽂아 이를 鷓冠이라 하였다.<sup>20)</sup>

漢대 武冠 복식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後漢書』 輿服志에 武冠이 朝服으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신분별로 조복에 해당하는 복식을 착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특별히 五官·左右虎賁·羽林·五中郎將·羽林左右監은 紗縠單衣를, 虎賁將과 虎賁武騎의 경우는 각각 虎文袴와 虎文單衣를 입도록 규정하였다.<sup>21)</sup> 『後漢書』 本紀에 “光武帝가 絳衣大冠을 착용하였다”는 기록의 주에 “大冠은 武冠이라 하는데 武官들의 관”이며 “絳衣에 大冠을 착용하는 것은 將軍服”이라고 하였는데<sup>22)</sup> 이 絳衣가 어떤 옷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武官들의 朝服을 가리킨 용어라고 생각된다.

漢대의 武冠제도는 위진남북조시대 각 왕조의 관복제도에 계승되었다. 魏의 관복제도를 체계적으로 전하는 문헌은 없으나 『魏書』에서 전하는 바에 의하면 “魏 景初3년(239) 이래 朝庭에서의 武舞 복식은 武弁·赤介幘·生絳袍·單衣絳領袖·皂領袖中衣·虎文畫合幅袴·白布袜·黑韋鞮이다. 魏가 晉으로 되면서 계승하고 고치지 않았다”고 하여 魏의 武舞服이 武弁이었다는 것과 복식 일습을 설명해 주고 있다.<sup>23)</sup> 즉 幘과 武弁을 함께 썼으며 안에 깃과 소매가 皂色인 中衣[皂領袖中衣]를 입은 후, 깃과 소매가 絳色인 單衣[單衣絳領袖]와 虎文이 있는 바지[虎文畫合幅袴]를 입고 袜과 鞮를 신었다.

晉의 武冠은 天子, 左右侍臣, 여러 將軍과 武官이 착용하였다. 天子는 平上幘과 武冠을 함께 쓴다고 하였고, 左右侍臣은 金璫·附蟬·貂毛를 장식한다고 하였다.<sup>24)</sup> 『晉書』 輿服志에 의하면 武冠

복식에 대한 설명은 없으나 같은 책 職官志에 의하면 三品將軍秩中二千石者가 “武冠·平上黑幘·五時朝服·佩水蒼玉을 착용한다”<sup>25)</sup>고 하여 平上黑幘과 武冠을 쓰고, 五時朝服을 착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水蒼玉은 朝服에 차는 佩玉이다.

宋의 武冠은 天子, 侍中·散騎常侍·中常侍, 그리고 大司馬·大將軍 이외에도 상하 여러 관직자들이 착용하였다. 宋대의 武冠 착용자 중에는 고취악대[乘輿鼓吹]도 포함되어 있다. 侍中과 常侍는 관에 貂蟬을 장식하되 侍中은 왼쪽에, 常侍는 오른쪽에 하였다. 武冠 복식은 五時朝服·四時朝服·朝服·阜零辟朝服·絳紗縠單衣·絳袴·四時科單衣·絳科單衣·錦文衣 등 각 관직의 朝服에 해당하는 옷을 착용하였다. 五時朝服 착용자의 경우에 관직에 따라 山玄玉·水蒼玉을 佩하였다. 綬도 관직에 따라 紫綬·青綬·黑綬·黃綬·假墨綬·假青綬를 각각 착용하였다.<sup>26)</sup>

齊의 武冠은 侍臣과 여러 武官이 착용하였다. 侍臣은 貂蟬을 장식하였으며 武騎虎賁은 雉尾를 꽂고 文衣를 착용하였다.<sup>27)</sup>

梁의 관복제도를 기록한 『隋書』 禮儀志에서는 天子의 拜陵시에 입을 수 있는 여러 관복 중 黑介幘과 武冠이 있다는 내용만을 전하고 있으나<sup>28)</sup> 같은 책 수레제도를 기록한 부분에서 수레를 매는 사람의 관복을 武冠과 朱衣라고 하였다.<sup>29)</sup> 역시 같은 책 列傳에서 “매일 밤 황제를 모실 때 武冠을 착용하였다”<sup>30)</sup>고 기록하고 있어 天子뿐 아니라 천자를 모시는 관직자, 수레를 매는 사람 등이 武冠을 착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陳의 武冠은 天子, 左右侍臣, 여러 將軍과 武官이 착용하였다. 陳대의 武冠 착용자 중에는 고취악대[鼓吹]도 포함되어 있다. 侍中常侍는 金璫附蟬·貂尾·黃金 등을 장식하였다. 大司馬·大將軍 외의 상하 여러 관직자들의 武冠 복식은 朝服·朱衣·朱服·絳紗縠單衣·錦文衣·絳科單衣·絳袴·玄衣 등 각 관직의 朝服에 해당하는 옷을 착용하였다. 또 관직에 따라 紫綬·青綬·墨綬·艾綬·假墨綬를 하였고, 山玄玉·水蒼玉을 佩하고, 獸頭鞶·假鞶를 찼다.<sup>31)</sup>

선비족 왕조인 北魏도 관복제도는 漢族 왕조의

제도를 계승하고 있다.<sup>32)</sup> 그러나 북위는 관복제도에서의 명칭으로 武弁을 사용하였으며 이는 隋와 唐에서도 계속되었다. 북위의 武弁은 天子, 主兵官 및 侍臣이 착용하였으며 侍臣은 관을 貂璫으로 장식하였다.<sup>33)</sup>

북위에서 갈라져 나온 北齊의 관복제도를 체계적으로 기록한 문헌은 없으나 “황제가 武弁을 쓰고 革輅를 탔다”는 기록<sup>34)</sup>과 “천자가 武弁을 쓰고 弁원쪽에 貂附蟬을 꽂았다”는 기록<sup>35)</sup>을 통해 북제의 황제가 武冠을 착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北周의 관복제도는 『周禮』의 제도를 따르고 있어<sup>36)</sup> 제도상으로는 武冠이 없지만 『周書』 帝紀에 北周의 侍臣이 武弁에 金蟬을 한 것을 지적하는 내용이 있어<sup>37)</sup> 北周의 侍臣이 武冠을 착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隋의 武弁은 天子, 여러 武官 및 侍臣, 左右衛·左右武衛·左右武候大將軍·領左右大將軍 등이 착용하였다. 천자의 武弁은 衣·裳·綬는 通天服과 같다고 하여 武弁이 朝服류임을 밝혀주고 있다. 侍臣 관에 金璫附蟬, 貂로 장식하였으며, 左右衛 장군들의 武弁 복식은 絳朝服에 劍·佩·綬를 함께 착용하였다.<sup>38)</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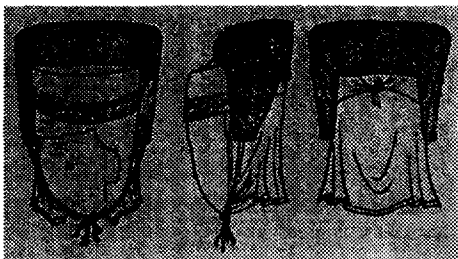
唐의 武弁은 天子, 武官朝參, 武舞를 추는 사람 [殿庭武舞郎, 고취악대[堂下鼓人·鼓吹按工] 등이 착용하였다. 武弁은 모두 平巾幘과 함께 착용하였으며 武弁 복식으로 武舞를 추는 사람은 緋絲布大袖·白練襠褶·臘蛇起梁帶·豹文大口袴·烏皮鞬를 착용하였고, 鼓人은 朱禱衣·革帶·烏皮履를, 鼓吹按工은 白練襠褶를 착용하였다.<sup>39)</sup>

이상 漢부터 唐까지 역대 관복제도를 고찰한 결과 龍관은 위로는 天子, 천자를 모시는 侍臣부터 여러 武職 관리, 수레를 매는 사람, 고취악대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신분에게 착용되었다. 龍관 복식은 漢대에 朝服류로 분류된 후 唐대까지 각 신분의 朝服에 해당하는 복식을 착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 IV. 籠冠의 유형과 籠冠 服飾

龍관은 명칭이 다양한 만큼이나 형태나 착용방법도 다양하다. 『後漢書』의 주<sup>40)</sup>를 비롯한 역대 관복제도에서 武冠은 平上幘과 함께 착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太平御覽』 卷687에서 인용한 『東觀漢紀』의 “段熲에게 赤幘大冠 1具를 사여하였다”<sup>41)</sup>는 기록에서도 大冠은 武冠의 다른 이름이므로, “赤幘大冠1具”라 하여 赤幘과 武冠이 함께 하나의 온전한 冠을 이루는 것을 말하고 있다. 중국 甘肅省 武威磨咀子62號 新莽묘에서는 남자 시신의 머리에는 赤幘, 그 위에 漆紗로 만든 武冠이 씌여진 채로 출토되어<sup>42)</sup> 완전한 武冠의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그림4> 幘 위에 武冠을 쓴 모습은 漢대 화상석과 도용에서 다수 발견된다.<그림5> 반면 湖南 長沙 馬王堆3號 西漢묘<sup>43)</sup>에서는 幘은 없고 武冠만 출토되었다.<그림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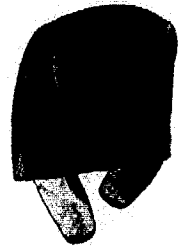
본 절에서는 도용·벽화·회화자료에 나타난 착용방법을 기준으로 龍관의 유형을 분류한 후 각 유형별 龍관 복식을 고찰한다. 龍관은 幘 위에 籠冠을 걸쳐쓰는 유형1, 幘 없이 籠冠만 쓰는 유형2, 幘을 籠冠 속으로 넣어 쓰는 유형3으로 구분된다.



<그림 4> 甘肅省 武威磨咀子 62號 新莽墓 (沈從文, 『中國古代服飾研究』, 217쪽)



<그림 5> 대영박물관 (周汛·高春明, 『中國歷代服飾』, 87쪽)



<그림 6> 湖南 長沙 馬王堆3號 西漢묘 출토 (沈從文, 『中國古代服飾研究』, 217쪽)

유형1. 幘 위에 籠冠을 걸쳐쓰는 유형

유형1은 幘 위에 籠冠을 걸쳐쓰는 방식으로 籠冠의 일반적인 유형이며 착용에는 漢대부터 唐대까지 보이는데 시대마다 형태상 약간의 차이가 보인다.

漢대의 武官들이 주로 쓰던 유형1의 武冠<sup>44)</sup>은 幘 위에 걸쳐지도록 착용하였으며 형태는 정면에서 볼 때 凹자를 뒤집어 놓은 모양이지만 정수리부분이 아래쪽보다 약간 넓다. 정수리부분이 편평하며 좌우 귀를 덮는 부분이 길게 내려오고 머리 뒷부분은 책 위에 걸쳐지는 앞부분보다 길게 내려와 뒷머리를 어느 정도 덮는 형태이다. 武冠의 재료가 대부분 漆紗로 되어 있어 화상석에도 대부분 그물 문양이 표현되어 있다. 이와 같은 유형은 晉대 묘의 화상석에도 보인다.<sup>45)</sup>

漢부터 晉까지 武官들과 무용하는 사람들이 유형1의 武冠을 착용하였다. 복식은 대부분 안에 襦와 袴를 입고 겉에는 무릎이하 발목까지 닿는 길이의 交衽 袍를 입었다.<그림7><그림8> 漢대 武冠 복식 중, 겉옷에 대해 將軍服인 “絳衣”, 鷩冠을 쓰는 武官들의 “紗縠單衣”, 虎賁武騎의 “虎文單衣” 등이 문헌에 언급되어 있는데 이들 “衣”는 그림에서 보이는 交衽 袍를 가리키는 말이며 깃부분에 여러개의 선이 있는 것으로 보아 袍 안에 「魏書」에서 말하는 中衣를 입었다고 생각된다. 漢대의 交衽 袍는 長沙馬王堆一號 漢墓 유물을 통해 그 형태를 확인

할 수 있다.<sup>46)</sup> 또 그림에서는 식별되지 않지만 착용자가 주로 武官이라는 점과 시기적으로 중국에 胡服이 도입된 이후<sup>47)</sup>라는 점을 감안할 때 袍 안에 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虎賁將의 바지 문양에 대해 “虎文袴”라고 규정한 것을 통해 다른 무관들도 모두 바지를 착용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다. 한편 무용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袍보다 짧은 상의와 바지를 착용하고 있다.<sup>48)</sup><그림9>

南北朝시대부터 隋대까지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籠冠을 착용하였는데 착용방법은 漢대와 같이 幘 위에 걸쳐 쓰는 방식이지만 형태는 漢대와 약간 다르다. 幘의 앞뒤높이의 차가 커져서 앞쪽은 낮고 뒤쪽으로 갈수록 높아지며 뒤쪽 윗부분에는 비너를 꽂았다. 籠冠은 역시 凹자를 뒤집어 놓은 모양이면서 위아래 너비가 거의 같은 반면, 정수리부분은 漢대보다 높아지고 귀를 덮는 부분은 더욱 길어지고 볼록해졌다.<sup>49)</sup><그림10>

남북조시대부터 隋대까지 유형1의 籠冠은 남녀 모두 착용하였으며 이 경우 복식은 두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袴褶 즉 저고리와 바지를 입는 경우이며, 둘째는 襦裙 즉 저고리와 치마를 착용하는 경우이다.

먼저 유형1의 籠冠을 袴褶과 함께 착용하는 것은 북조와 남조에서 모두 나타난다. 특히 북위에서는 朝會 때 籠冠과 고슴을 착용하여 북위에 은 南朝 梁 사람인 褚綰가 이를 보고 비웃은 내용이 기록되어



<그림 7> 洛陽 漢墓  
(杉本正年, 『カラスライド  
東洋服飾史』 56쪽)



<그림 8> 漢代 畫像石  
(周汎・高春明,  
『中國歷代服飾』, 38쪽)



<그림 9> 漢代 畫像石  
(『文物』 1980年 第3期)

있다.

“袴絹가 魏에 있을 때 魏人들이 그를 등용하고자 하였다. 魏 元會에서 絹는 희롱하며 시를 짓기를 帽 위에 籠冠을 쓰고, 袴 위에 朱衣를 입으니, 오늘날의 것인지 옛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하여 魏人들이 노하여 始平太守로 보내었다.”<sup>50)</sup>

帽 위에 籠冠을 쓴 것은 幘 위에 籠관을 쓰는 漢族 풍속과 비교되는 점이며, 또 袴와 朱衣를 입은 것은 漢族식의 朝服과 비교되는 점이다. 북위 사람들이 籠관 아래에 썼다는 帽은 머리뒤쪽에 자락이 드리워진 선비족 전통 帽<sup>51)</sup>을 말함인데 북조의 도용이나 벽화에서의 籠관 착용을 예를 보면 모두 幘과 함께 착용하였고, 帽와 함께 착용한 경우는 발견되지 않는다. 이는 선비족에게 그들의 고유복식을 금지한 북위 孝文帝의 복식개혁<sup>52)</sup> 이후 漢族의 풍속대로 籠冠을 帽 대신 幘과 함께 착용하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袴 위에 朱衣를 입었다는 것은 袴褶의 褶이 朱色임을 말하는 것으로, 북위 肅宗때 양주자사 이현이 꿈에서 말을 타고 朱衣·籠冠을 착용한 前 황제 高祖의 中書舍人을 만났다는 기록<sup>53)</sup>에서의 朱衣 역시 袴褶이라고 생각된다.

남조 宋에서도 籠관과 함께 고습을 착용하였으며 습의 색은 역시 朱色이었다. “劉德愿이 籠冠·短朱衣를 입고 고삐를 잡고 나아가고 멈추니 매우 용모가 뛰어났다”는 기록<sup>54)</sup>에서 말을 탈 때 입은 짧은 朱衣란 고습의 상의를 말하는 것이다.

袴褶을 착용할 때는 간편함을 위해 무릎에서 바지를 묶어[縛袴] 입기도 하였는데<sup>55)</sup> 유형1의 籠관과 무릎을 묶은 袴褶을 착용한 모습을 북위<sup>56)</sup>〈그림 11〉와 隋의 도용<sup>57)</sup>에서 볼 수 있다.

둘째로 유형1의 籠관을 襦袴와 함께 착용하는 것은 북위를 비롯한 다수의 北朝 冢<sup>58)</sup>, 南朝 冢<sup>59)</sup>, 그리고 隋 冢<sup>60)</sup>에서도 발굴되어 남북조시대부터 隋대까지 유행한 양식으로 보인다.〈그림 12〉 착용자의 신분은 여자 시종으로 보인다.

저고리[襦]는 좌입 또는 우입의 교입이며 소매가 넓다. 특이한 것은 목너비 즉 고대를 넓게 하여 착용시 저고리의 목부분이 벌어지는 현상인데 籠관을



<그림 10> 河北景縣封氏墓 도용 (沈從文, 『中國古代服飾研究』, 188쪽)



<그림 11> 北魏 元邵墓 도용 (『考古』1973年 第4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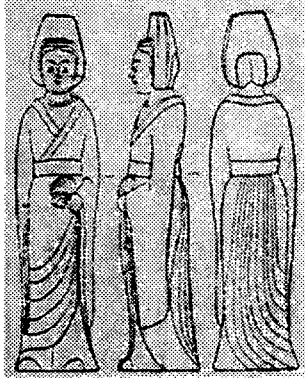
고습과 함께 착용한 경우〈그림 11〉에도 유사한 현상이 보여 당시 유행한 스타일로 보인다.

치마[裙]는 발등을 덮는 길이며 보통 허리띠를 매어 앞으로 늘어트렸다. 띠를 매는 위치는 약간 가슴쪽으로 올려매기도 하고 허리에 매기도 하였다. 또 한쪽 손으로 치마자락을 잡거나 팔을 구부리고 팔꿈치에 치마자락을 끼고 있어 치마자락이 한쪽으로 돌려 올라가면서 자연스러운 치마 주름선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그림 13〉 신발의 형태는 치마에 가려 확실치 않지만 앞끝이 약간 올라간 것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隋대의 도용 중에는 유형1의 변형으로 생각되는 籠관이 보인다. 幘의 뒷쪽이 더욱 높아지고 커졌으며 책 전체가 籠관 앞쪽으로 노출되도록 착용한 것이 그것이다.<sup>61)</sup>〈그림 14〉 이 幘은 같은 무덤에서 출토된 갑옷 입은 무사 도용의 幘과 같은 형태로



<그림 12> 東魏 茹茹公主墓  
(『中國少數民族  
文化史圖典』, 176쪽)



<그림 13> 北齊 婁叡墓  
(『文物』1983年 第10期)



<그림 14> 武漢市 隋墓  
(『考古通訊』1957年 第6期)



<그림 15> 武漢市 隋墓  
(沈從文, 『中國古代服飾研究』,  
207쪽)



<그림 16> 唐 鄭仁泰墓  
(『漢唐絲綢之路文物精華』, 96쪽)

뒤쪽이 높으며 중앙에 비너를 꽂았다.<그림15> 이 때의 룡관 복식은 남북조시대에 유행한 것과 같은 襦裙을 착용하고 高頭履를 신었다. 그러나 이렇게 책 전체가 룡관 앞으로 완전히 노출되도록 착용한 예는 이 도용 외에 다른 예가 없기 때문에 隋대

에 나타난 변형된 룡관 형식인지 아니면 룡관 속에 감추어진 책의 모습을 표현하고자 한 도용 제작자의 기법인지 알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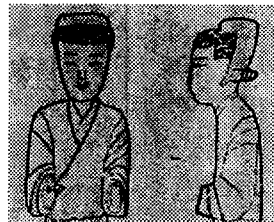
唐대에 유형1의 룡관을 쓴 예는 주로 말을 탄 악기연주자에게서 볼 수 있다.<sup>62)</sup><그림16> 唐대에 복치는 사람[鼓人]은 朱襦衣, 革帶, 烏皮履를 착용한다고 하였는데 그림에서는 룡관에 袍를 입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 유형2. 幘 없이 룡관만 쓰는 유형

역대 관복제도에서 룡관은 幘과 함께 착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때로는 幘 없이 룡관만 쓰기도 하였다. 이렇게 책 없이 룡관만 착용한 예는 秦始皇陵 兵馬俑에서부터 보이기 시작하여<그림 17> 西漢 묘에서 발굴된 도용<sup>63)</sup><그림18>과 東晉의 화가 顧愷之의 『女史箴圖卷』의 수레를 맨 사람들



<그림 17> 秦始皇 병마용  
(沈從文, 『中國古代服飾研究』, 7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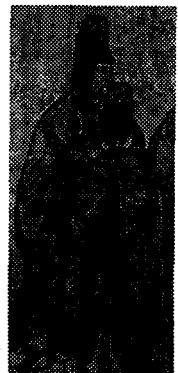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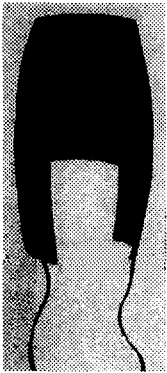


<그림 18> 西漢 墓  
(『考古』1995年 第3期)



<그림 19> 『女史箴圖卷』  
(周汎·高春明, 『中國歷代服飾』, 85쪽)





<그림 20> 유형 3의 롱관 <그림 21> 北魏 甯懋石室 벽화 <그림 22> 東晉 『洛神賦圖卷』 <그림 23> 唐 李賢墓 벽화  
 (周汎·高春明, (沈從文, (周汎·高春明, (『中國唐墓壁畫集』,  
 『中國歷代服飾』, 84쪽 『中國古代服飾研究』, 197쪽 『中國歷代服飾』, 83쪽 106쪽)

<sup>64)</sup><그림19>에게서 볼 수 있다.

유형2의 롱관 착용자는 병사, 수레를 매는 자 등 비교적 낮은 계급의 관직자로 보인다. 南朝 宋, 梁, 陳의 관복제도에서 수레를 매는 자의 武冠에 대해 규정하였다.

책 없이 무관을 착용한 이들의 복식은 안에 中衣와 바지를 입은 후 겹에 직령 교임 袍를 입고 허리띠를 맺으며 履를 신고 있다.<그림19> <그림18>은 도용의 다리가 잘려 하의는 확인되지 않지만 상의로는 역시 교임 袍를 입은 것을 볼 수 있다.

**유형3. 幘을 籠冠 속으로 넣어 쓰는 유형**

유형3은 幘을 籠冠 속으로 완전히 넣어 착용하는 방식<그림20>으로 착용에는 북조와 남조에서 모두 나타나며 특히 唐대에 많이 보인다.<sup>65)</sup> 北魏 洛陽 甯懋石室 벽화에서는 롱관 안에 쓴 책에 장식이 가해진 것을 볼 수 있는데 책의 뒷부분이 갈라져서 약간 왼쪽으로 솟은 뾰족한 형태를 하고 있다.<sup>66)</sup><그림21> 東晉의 화가 顧愷가 그린 『洛神賦圖卷』에서도 幘을 롱관 속으로 완전히 넣어 착용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경우 롱관 복식은 直領 襦와 裙을 입고 허리띠를 매고 폐슬을 하고 高頭履를 신었다.<그림22>

唐대 유형3의 롱관 착용에는 李賢묘 벽화에서 唐 관리들이 착용한 것을 볼 수 있으며<그림23> 그 외에 唐 화가 閻立本이 그린 『列代帝王圖卷』 중, 晉 武帝 등 역대 황제의 좌우 관리들에게서도 발견된

다. 이 경우 롱관 복식은 앞의 예보다 좀더 의례적이다. 역대 관복제도의 武冠 복식이 朝服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그림21>과 <그림23>에서 롱관을 조복과 함께 착용한 것을 볼 수 있다.

이상 세가지 유형의 롱관의 시대별 출현 상황은 <표2>와 같다.

<표 2> 유형별·시대별 롱관 출현 상황

시대 \ 유형	진	한	남북조	수	당
유형1					
유형2					
유형3					

유형1은 幘 위에 籠冠을 걸쳐쓰는 방식으로 籠冠의 일반적인 유형이며 착용에는 漢대부터 唐대까지 보이는데 시대마다 형태상 약간의 차이가 보인다. 漢대의 착용자는 주로 武官과 侍臣이었으며 무용하는 사람도 착용하였다. 武冠 복식은 안에 中衣와 바지를 입고 겹에는 길이가 무릎이하 발목까지 닿는 交衽 袍를 착용하였다. 무용하는 사람들은 袍보다 짧은 상의와 바지를 착용하였다. 남북조시대부터 隋대까지 유형1의 롱관은 다양한 계층에 착용되었으며 롱관 복식은 두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袴褶 즉 저고리와 바지를 입는 것으로 북조에서는 朝會에 참석하는 관리들, 남조에서는 말을 탈 때 착용하였다. 둘째는 襦裙 즉 저고리와 치마를 입는 것으로



<그림 24> 하반신N



<그림 25> 하반신F



<그림 26> 하반신I

여자시종들이 착용하였다. 唐대 유형1의 롱관은 주로 말을 탄 약기연주자들이 착용하였으며 발목까지 닿는 길이의 袍를 착용하였다.

유형2는 幘 없이 롱관만 착용하는 방식으로 秦부터 남북조시대까지 착용되었다. 착용자는 병사, 수레 끄는 사람 등 주로 신분이 낮은 계급에서 착용한 것으로 보이며 롱관 복식은 안에 中衣와 바지를 입고, 겉에는 무릎을 덮는 길이의 交衽 袍를 착용하였다.

유형3은 幘을 籠冠 속으로 완전히 넣어 착용하는 방식으로 남북조시대부터 唐대까지 착용되었다. 착용자는 주로 신분이 높은 관직자, 황제의 侍臣 등이며 롱관 복식은 주로 朝服류의 의례용 복식을 착용하였으며 남북조시대에는 直領 襦, 裙, 帶, 蔽膝, 高頭履를 착용하기도 하였다.

#### IV. 정립사지 籠冠 도용의 服飾

부여 정립사지 도용은 부서진 파편 상태로 발굴되어 롱관을 쓴 首部 도용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롱관 도용의 성격과 복식이 규명되어야 한다. 롱관의 유형 분류에 따르면 首部 A, B, C 도용은 모두 幘 위에 籠冠을 걸쳐쓰는 유형1에 속한다. 유형1은 漢대부터 唐대까지 착용되었지만 그 중에서도 남북조시대부터 隋대까지의 롱관과 가장 유사하다. 남북조시대부터 隋대까지 롱관은 朝會에 참석하는 관리부터 여자 시종까지 다양한 계층에 착용되었다. 首部만으로 신분과 성별을 정확하게 분별하기는 어려우나 미소를 짓고 있는 얼굴모습을 고려할 때 여자 시종으로 생각된다.

남북조시대부터 隋대까지 나타난 유형1의 롱관

을 쓸 경우 복식은 두가지 경우로 복원이 가능하다. 첫째는 袴褶 즉 저고리와 바지 착용, 둘째는 襦裙 즉 저고리와 치마 착용이다.

정립사지 도용 파편 중에는 이 首部 도용의 일부라고 여겨지는 파편들이 있다. 그 중, 발굴 보고서 분류번호 下半身N은 넓은 소매자락과 허리띠를 매어 늘어트린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왼쪽 하반신 파편이며<그림24>, 下半身F는 오른쪽 허리부분과 엉덩이부분 파편으로 허리 앞쪽에서 넓은 허리띠를 매어 늘어트린 모습의 파편이다<그림25>. 이는 남북조시대부터 隋대까지의 유형1 롱관을 襦裙과 함께 착용하거나 袴褶와 함께 착용할 때 흔히 넓은 허리띠를 매어 앞으로 늘어트린 것과 같은 착용법을 보여주는 파편이다<그림12>.

下半身I는 무릎아래부터 발까지의 파편으로 치마가 오른쪽 위쪽으로 들려지고 치마 주름이 형성되어 있다<그림26>. 이는 남북조시대부터 隋대까지의 유형1의 롱관 도용에서 흔히 한쪽 손으로 裙의 한쪽 자락을 쥐고 있어 그 방향으로 자연스러운 치마 주름이 형성되도록 한 것과 같은 착용법을 보여주는 파편이다<그림13>.

따라서 정립사지 首部 도용들은 함께 출토된 하반신 파편 N, F, I 등을 통해 남북조시대부터 隋대까지의 유형1의 롱관 복식 즉 襦裙 또는 袴褶 착용으로 복원이 가능하다.

#### V. 정립사지 籠冠 도용의 복식사적 위치

부여 정립사지 롱관 도용은 중국 남북조시대부터

隋대까지 나타나는 유형1의 룡관과 가장 유사하므로 남북조시대부터 隋대까지로 상한선과 하한선을 설정한 후 부여 정립사지 도용의 복식사적 위치를 논할 때 다음 세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로 이 도용은 중국에서 제작된 것으로 백제 시대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백제가 대중관계를 맺기 시작한 시기는 백제사를 언제부터 보느냐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지만 유형1의 룡관이 나타나는 남북조시대를 상한선으로 정할 때 근초고왕27년(372) 동진과의 국교를 수립한 것을 시작으로 역대 남조 왕조와 계속 교류하였으며 위덕왕14년(567)에는 北齊와 국교를 수립하여 남북 양조와 국교관계를 맺어왔다.<sup>67)</sup> 백제 지역은 고구려, 신라지역보다 중국 陶磁 유물의 출토사례가 많이 보고되었으며 한성시대부터 사비시대에 걸쳐 다량의 중국 陶磁가 수입되어 일찍이 백제 지역에 도자 문화를 싣듯게 한 자극제가 되었다.<sup>68)</sup> 특히 백제 사비시대 유적에서는 북조에서 유행하던 청자병이 출토되어 북방외교노선을 지향한 威德王연간(554-597) 이후 백제가 북조와 계속적으로 교류했다는 증거가 되고 있다.<sup>69)</sup> 부여 정립사지 도용도 이처럼 중국에서 수입된 것으로 볼 때 룡관 도용은 백제와 중국 특히 북조와의 교류관계를 보여주는 좋은 자료로서 그 복식사적 위치는 중국 남북조에서 隋대의 복식이라 할 수 있다.

둘째로 이 도용은 중국 도자문화의 영향을 받아 백제에서 모방 제작된 것이지만 단순히 모방 제작한 도용일 가능성이 있다. 정립사지에서 룡관 도용과 같은 방법으로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도용 파편들은 총 63점이 발굴되었고 그 중에는 袈裟식 옷을 걸치고 있는 도용 파편이 다수를 차지한다. 백제에 불교가 전해진 것은 384년(침류왕 원년)이며 아신왕 원년(392)에는 “불법을 만들고 믿어 복을 구하라”는 下敎를 내렸다.<sup>70)</sup> 백제는 중흥을 꾀한 성왕에 의해 538년 부여로 천도한 후 660년 멸망할 때까지 부여에서 123년간 찬란한 불교문화를 꽃피웠다. 실제로 절터나 절터사원 유적이거나 유물들은 부여지방을 중심으로 산재되어 있어 부여 도읍기가 백제 불교의 중흥기였음을 짐작케 한다.<sup>71)</sup> 이러한 부여 지역의 불교사적 배경을 고려할 때 정립사지에서 발견

된 불교적 성격을 띠는 소조 불상 및 도용 파편들은 백제에서 직접 제작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백제 陶磁에 대한 연구에서 김영원은 부여 정립사지에서 룡관 도용과 함께 출토된 塑造 불상을 백제에서 중국식 제작기법을 모방하여 제작한 것으로 보았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새로운 도자 문화의 확립을 의미한다고 하였다.<sup>72)</sup> 룡관 도용도 이처럼 중국식 도용 제작기법을 모방하여 백제에서 제작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단순히 모방 제작된 도용이라고 할 때 복식사적 위치는 여전히 중국 남북조에서 隋대의 복식이라 할 수 있다.

셋째로 이 도용은 백제에서 제작되었으며 도용의 복식 역시 당시 백제에서 착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지금까지의 백제 복식사적 문헌 및 유물자료 중, 세 번째 가능성을 직접적으로 증명해 주는 자료는 확인되지 않지만 고구려 벽화 중 안악3호분, 덕흥리고분, 수산리벽화 등에서 남자주인공이 룡관과 유사한 관을 착용한 것이 발견되므로<sup>73)</sup> 한반도 내에서 처음 등장한 관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또한 백제의 중국과의 장기간의 국가간 교류를 통한 문화의 전파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정립사지 도용 룡관의 유형은 남북조시대부터 隋대에 걸쳐 나타나며 특히 남북조시대에는 북조 지역에서 많이 출토되긴 하나 북조와 남조 묘에서 모두 나타나 당시 유행한 스타일로 보인다. 백제는 魏 景元2년(261)에 馬韓이 조공한 것<sup>74)</sup>을 시작으로 西晉·東晉 및 역대 南朝와 교류하였으며 위덕왕14년(567) 北齊와 국교를 수립하여 시작된 북조와의 교류는 隋나라의 멸망(618)때까지 계속되었다. 따라서 정립사지 도용은 중국의 제작방법을 도입하여 백제에서 직접 제작된 것이며 도용의 복식 역시 당시 중국에서 유행한 룡관 복식이 백제에 전해져 착용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 VI. 결 론

부여 정립사지에서 발굴된 룡관을 쓴 首部 도용의 성격을 규명하고 도용을 복원하기 위하여 漢대부터 唐대까지 중국의 籠冠 제도를 고찰하고 유형을 분류한 후 룡관과 함께 착용하는 복식에 대해 고

찰하였다.

롱관은 시대를 내려오면서 명칭·착용범위·형태가 다양해졌다. 본래 武官들의 冠이어서 武冠으로 불렸던 것이 漢代에는 武弁·大冠으로도 불렸으며 남북조시대부터는 繁冠·建冠·籠冠 등의 명칭이 추가되었다. 역대 관복제도에서의 대표 명칭으로는 武冠과 武弁이 사용되었지만 남북조 이후 일반적으로 籠冠이라는 명칭으로 통용되었다. 착용범위는 본래 武官과 侍臣의 관이었던 것이 남북조시대에는 위로는 天子, 武官부터 아래로는 악기연주자 및 수레 매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또 남자뿐 아니라 여자에게로까지 범위가 확대되었다. 따라서 武冠에서 籠冠으로의 명칭변화는 착용자 특성을 반영한 명칭에서 冠의 형태를 반영한 명칭으로 바뀐 것으로 볼 수 있다.

롱관의 유형은 착용방식에 따라 세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는데, 각각의 유형과 롱관 복식은 다음과 같다. 유형1은 幘 위에 籠冠을 걸쳐쓰는 방식으로 漢代부터 唐代까지 보이며 시대에 따라 복식에 차이가 있다. 漢代에는 안에 中衣과 바지를 입고 겉에는 길이가 무릎이하 발목까지 닿는 交衽 袍를 착용하였다. 남북조시대부터 隋代에는 袴褶착용과 襦裙착용으로 구분되며, 唐代는 袍를 착용하였다. 유형2는 幘 없이 籠冠만 쓰는 방식으로 秦부터 남북조시대까지 보이며 복식은 안에 中衣와 바지를 입고, 겉에는 무릎을 덮는 길이의 交衽 袍를 착용하였다. 유형3은 幘을 籠冠 속으로 넣어 쓰는 방식으로 남북조시대부터 唐代까지 보이며 朝服류의 의례용 복식을 착용하였다. 정립사지 首部 도용들은 모두 남북조시대부터 隋代까지의 유형1 롱관에 해당하며 신분은 여자 시종으로 보인다. 복식은 袴褶 즉 저고리와 바지 착용과 襦裙 즉 저고리와 치마 착용 두가지로 복원이 가능하다.

정립사지 도용의 롱관 복식의 복식사적 위치에 대해서는 자료의 한계로 인해 중국 남북조시대부터 隋代까지 복식일 가능성과 당시 유행한 중국 복식의 영향을 받은 백제 복식일 가능성만을 생각해 볼 수 있을 뿐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다. 앞으로 추가 자료가 발견된다면 본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좀 더 명확한 복식사적 위치 규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 참고 문헌

- 1) 尹武炳, 『定林寺址發掘調査報告書』, 충남대학교박물관·충청남도청, 1981
- 2) 강우방, 『新羅土偶論』, 『新羅土偶』, 국립경주박물관, 1997, 117쪽
- 3) 尹武炳, 『定林寺址發掘調査報告書』, 충남대학교박물관·충청남도청, 1981, 67-68쪽
- 4) 『三國史記』 卷第4 新羅本紀 第4 智證麻立干3年
- 5) 『三國史記』 卷第5 新羅本紀 第5 眞德王2年
- 6) 김동욱, 『百濟의 服飾』, 백제문화개발연구원, 1985, 71쪽
- 7) 權允遠, 『百濟의 籠冠考』, 『윤무병박사회갑기념논총』, 1984
- 8) 『晉書』 志卷25 志第15 輿服 (767쪽) “武冠, 一名武弁, 一名大冠, 一名繁冠, 一名建冠, 一名籠冠”(이하 괄호 안의 쪽번호는 中華書局에서 출판된 二十五史의 쪽번호)
- 9) 『隋書』 志卷11 志第6 禮儀6 (234쪽) “武冠, 一名武弁, 一名大冠, 一名繁冠, 一名建冠, 今人名曰籠冠”
- 10) 趙惠文冠이나 關冠은 武冠에 별도의 장식이 가해진 경우의 명칭이므로 논외로 한다.
- 11) 『宋書』 卷45 列傳 第5 劉懷願 (1376쪽) “德願岸著籠冠, 短朱衣”
- 12) 隋書는 唐의 魏徵이 썼다.
- 13) 原田淑人, 『漢六朝의 服飾』, 東京:大冢巧藝社, 1937, 110-111쪽
- 14) 中國服飾大辭典編委會編, 『中國服飾大辭典』, 山西人民出版社, 1992, 316쪽
- 15) 李洪甫, 『孔望山造像中部分題材의 考證』, 『文物』 1982年 第9期
- 16) 陝西省博物館·乾縣文教局 唐墓發掘組, 『唐鄭仁泰墓發掘簡報』, 『文物』 1972年 第7期 의 다수
- 17) 이 외에 “平頂高冠”(河北省文化局文物工作隊, 『河南上蔡縣賈莊唐墓清理簡報』, 『文物』 1964年 第2期) 또는 “風帽”(陶正剛, 『山西祁縣白圭北齊韓墓』, 『文物』 1975年 第4期)라고 한 경우도 있다.
- 18) 周汛·高春明의 『中國歷代服飾』을 비롯한 대부분의 中國服飾史 개설서에서 籠冠이라고 칭하고 있다.
- 19) 『後漢書』 志第30 輿服下 (3668쪽) “武冠은 일명 武弁大冠이라 하며, 武官들의 관이다. 侍中·中常侍는 黃金璫을 가하며, 附鞮으로 문양을 삼고, 貂尾로 장식하여, 이를 ‘趙惠文冠’이라 한다. 胡廣이 설명하기를, ‘趙武靈王이 胡服을 모방한 것으로 머리에 金璫으로 장식하고 앞에는 貂尾를 꽂아 黃職을 표시하였다. 秦이

- 趙를 멸한 후 그 君冠을 近臣에게 사여하였다.”
- 20) 『後漢書』 志第30 輿服下 (3668, 3670쪽)
  - 21) 『後漢書』 志第30 輿服下 (3670쪽)
  - 22) 『後漢書』 卷1上 光武帝紀 第1上 (3쪽) (地皇3年(22) 11月) “及光武絳衣大冠”의 注2 “董巴輿服志曰, ‘大冠者 謂武冠 武官冠之.’ 東觀記曰 ‘上時絳衣大冠, 將軍服也”
  - 23) 『魏書』 卷109 志第14 樂志 (2841쪽) “依魏景初三年以來衣服制, …其寒於廟庭, 武舞, 武弁·赤介幘·生絳袍·單衣絳領袖·皂領袖中衣·虎文畫合幅袴·白布袜·黑韋鞮”
  - 24) 『晉書』 卷25 志第15 輿服 (767-768쪽)
  - 25) 『晉書』 卷24 志第14 職官 (729쪽) “三品將軍秩中二千石者, 著武冠, 平上黑幘, 五時朝服, 佩水蒼玉”
  - 26) 『宋書』 卷18 志第8 禮5 (501-531쪽)
  - 27) 『南齊書』 卷17 志第9 輿服 (341쪽)
  - 28) 『隋書』 卷11 志第6 禮儀6 (215-216쪽) “梁制, 乘輿…拜陵則箋布單衣, 介幘, 又有五梁進賢冠·遠遊·平上幘武冠”
  - 29) 『隋書』 卷10 志第5 禮儀5 (191-192쪽) “天監7年(508)…其餘四輅, 則使人執轡, 以朱絲爲之, 執者武冠·朱衣”
  - 30) 『梁書』 卷50 列傳第44 文學下 陸雲公從兄才子 (724쪽) “常夜侍御坐, 武冠燭燭火”
  - 31) 『隋書』 卷11 志第6 禮儀6 (218-238쪽)
  - 32) 박현정, 『中國 具民族 王朝의 服飾政策 比較-北魏와 清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8. 63쪽
  - 33) 『隋書』 卷11 志第6 禮儀6 (239쪽)
  - 34) 『隋書』 卷8 志第3 禮儀3 (164쪽) “有司陳小駕鹵簿, 皇帝武弁, 乘革輅”
  - 35) 『隋書』 卷8 志第3 禮儀3 (159쪽) “後齊天子親征篡賊, 則服通天冠, 文物充庭, 有司奏更衣, 乃入, 冠武弁, 弁左貂附蟬以出”
  - 36) 『隋書』 卷11 志第6 禮儀6 (244-252쪽)
  - 37) 『周書』 卷7 帝紀第7 宣帝贊 (125쪽)
  - 38) 『隋書』 卷12 志第7 禮儀7 (255쪽)
  - 39) 『新唐書』 卷24 志第14 車服 群臣之服 (520쪽) “武弁者, 武官朝參·殿庭武舞郎·堂下鼓人·鼓吹按工之服也, 有平巾幘, 武舞緋絲布大袖, 白練裙襠, 龍蛇起梁帶, 豹文大口袴, 烏皮鞋, 鼓人朱袴衣, 革帶, 烏皮履, 鼓吹按工加白練裙襠”
  - 40) 『後漢書』 志第30 輿服下의 주2 (3668쪽) “晉公卿禮秩曰, ‘大司馬·將軍·尉·驃騎·車騎·衛軍·諸大將軍開府從公者, 著武冠, 平上幘.”
  - 41) 孫機, 『進賢冠與武弁大冠』, 『中國古輿服論叢』, 文物出版社, 1993, 134쪽
  - 42) 甘肅省博物館, 『武威磨咀子三座漢墓發掘簡報』, 『文物』 1972年 第12期
  - 43) 湖南省博物館·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長沙馬王堆二·三號漢墓發掘簡報』, 『文物』 1973年 第7期
  - 44) 河南省文化局文物工作隊, 『南陽漢代石刻墓』, 『文物』 1958年 第10期の 다수의 漢代 瓦當석과 도용에서 유형1의 착용모습을 볼 수 있다.
  - 45) 河南省文化局文物工作隊·南陽市文物管理委員會, 『河南南陽東關晉墓』, 『考古』 1963年 第1期, 도판3-4
  - 46) 『長沙馬王堆一號漢墓』 下, 北京:文物出版社, 1973
  - 47) 『史記』 卷43 趙世家 第13
  - 48) 南陽市博物館·方城縣文化館, 『河南方城東關漢畫像石墓』, 『文物』 1980年 第3期
  - 49) 張季, 『河北景縣封氏墓群調查記』, 『考古通訊』 1957年 第3期
  - 50) 『梁書』 卷20 列傳 第14 陳伯之 (p.315) “褚綯在魏, 魏人欲擢用之, 魏元會, 綯戲爲詩曰, ‘帽上着籠冠, 袴上著朱衣, 不知是今是, 不知非昔非.’ 魏人怒, 出爲始平太守.”
  - 51) 『通典』 卷第57 禮17 沿革17 嘉禮2 (p.1621) “後魏或著突騎帽, 如今胡帽, 垂裙覆帶, 蓋索髮之遺象也”
  - 52) 박현정·이순원, 『北魏 孝文帝의 服飾改革에 관한 연구』, 『服飾』 43, 1999, 293쪽
  - 53) 『魏書』 志/卷一百一十二下 志第十八/靈徵志下 -2956-
  - 54) 『宋書』 卷45 列傳第5 劉懷慎·子德頤 (1376쪽) “(劉)德頤岸著籠冠, 短朱衣, 執轡進止, 甚有容狀.”
  - 55) 『宋書』 卷70 列傳第30 袁淑 (1840쪽) “淑及左右 使以縛袴”
  - 56) 洛陽博物館, 『洛陽北魏元邵墓』, 『考古』 1973年 第4期の 다수
  - 57) 陝西省考古研究所隋唐研究室, 『陝西長安隋宋忻夫婦合葬墓清理簡報』, 『考古與文物』 1994年 第1期 도 2-5
  - 58) 張季, 『河北景縣封氏墓群調查記』, 『考古通訊』 1957年 第3期の 다수
  - 59) 南京博物院, 『江蘇丹陽縣胡橋·建山兩座南朝墓葬』, 『文物』 1980年 第2期
  - 60) 湖北省文物管理委員會, 『武漢市郊周家大灣241號隋墓清理簡報』, 『考古通訊』 1957年 第6期  
安陽市文物工作隊, 『河南安陽市兩座隋墓發掘報告』, 『考古』 1992年 第1期  
陝西省考古研究所隋唐研究室, 『陝西長安隋宋忻夫婦合葬墓清理簡報』, 『考古與文物』 1994年 第1期
  - 61) 湖北省文物管理委員會, 『武漢市郊周家大灣241號隋墓清理簡報』, 『考古通訊』 1957年 第6期
  - 62) 陝西省博物館·乾縣文教局 唐墓發掘組, 『唐鄭仁泰墓發掘簡報』, 『文物』 1972年 第7期の 다수
  - 63) 徐州博物館, 『江蘇銅山縣李屯西漢墓清理簡報趙豐』, 『文物』 1995年 第3期

- 64) 沈從文, 『中國古代服飾研究』, 香港:商務印書館, 1992, 218쪽
- 65) 河北磁縣 灣漳의 北朝墓 벽화(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河北省文物研究所 鄴城考古工作隊, 「河北磁縣 灣漳北朝墓」, 『考古』1990年 第7期)에서도 유형3의 룡관을 쓰고 直領 袍를 입고 허리띠를 맨 것을 볼 수 있다.
- 66) 沈從文, 『中國古代服飾研究』, 香港:商務印書館, 1992, 197쪽
- 67) 『한국사』 6 삼국의 정치와 사회 II-백제, 국사편찬위원회, 1995, 115쪽
- 68) 김영원, 「百濟時代 中國陶磁의 輸入과 倣製」, 『百濟文化』 27, 1998, 53-54쪽
- 69) 김영원, 앞논문, 75쪽
- 70) 『한국사』 4, 서울:한길사, 1995, 267-268쪽
- 71) 『국립부여박물관』, 국립부여박물관, 1997, 173-174쪽
- 72) 김영원, 앞논문, 76쪽  
정림사지 발굴 보고서에서도 백제에서 제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 73) 고구려벽화에서 보이는 이와 유사한 관에 대해서는 기존의 연구에서 羅冠이라고 하였으나 최근, 정완진은 羅冠이 아닌 武冠이라고 하였다. (정완진, 「袁台子墓 벽화 주인공 복식에 관한 연구-고구려 복식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服飾』 51, 105쪽)
- 74) 『三國志』 卷4 魏書4 三少帝紀 第4